

문화

■ 리뷰 - 5·18 뮤지컬 '화려한 휴가'



도청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배우도 관객도 함께 울었다

아들의 싸늘한 시신을 만지며 울부짖는 눈먼 어머니. 그녀를 지켜보던 여주인공이 신에게 광주를 보살펴달라고 절규하며 노래 할 때 객석은 함께 흐느꼈다. 도청에서의 마지막 밤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관객들은 또 먹먹해졌다.

지난 15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첫 선을 보인 5·18 30주년 기념 뮤지컬 ‘화려한 휴가’는 노래와 춤으로 5월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작품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 흐르면 관객들은 ‘1980년 5월’ 속으로 들어간다. 또 다시 찾아온 ‘그 날’, 5·18 국립묘지를 찾은 여주인공 신애는 세월 속으로 사라진 ‘그들’을 다시 불러냈다.

이후 뮤지컬은 원작인 영화 ‘화려한 휴가’의 스토리를 충실히 따라간다. 1막에서는 수줍게 시작하는 민우와 신애의 사랑, 민우와 진우의 혈제애, 동네 사람들의 사연들이 가슴 따뜻하게 그려진다. 작품은 즐비한 세월에서면서 ‘1980년 5월’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시민들의 희생, 공수부대의 만행, 그리고 도청에서의 마지막까지 응장한 음악과 역동적인 춤사위가 어우러지며 그날을 그려나갔다.

미하엘 슈타우다하 음악은 풍성했다. ‘다시 부르는 사랑’, ‘그대 떠

난 꿈에’ 등 서정적인 멜로디의 넘버와 ‘광주 내 사랑’ 등을 오랫동안 치마에 맵도는 노래다. 또 끝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소풍 가는 날’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시민군 등으로 출연하는 양상들의 조합과 신애 역의 김현정씨 등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배우들의 연기와 노

**웅장한 음악 역동적인 춤
배우들 연기·노래 인상적
긴 러닝타임에 지루함도
광주 공연 19일까지 계속**

래도 눈길을 끌었다.

수정보완해야 할 점도 눈에 띄었다. 일단 중간 휴식 시간을 포함해 2시간50분에 유행하는 러닝타임은 다소 지루하다는 느낌을 줬다. 화려한 볼거리에 주목하는 대형 뮤지컬이 아니고, 결국은 죽음으로 치닫는 주인공들을 따라가며 감정이 계속 상승곡선을 그려야하는데 이야기가 늘어지면서 감정의 폭발이 멈춰버리는 느낌이었다.

주인공인 민우와 신애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것도 필요했다. 풋풋한 사

랑의 시작, 헤어짐의 애타함, 신애와 아버지의 이별, 민우의 죽음 등 주인공들을 둘러싼 에피소드와 뮤지컬 넘버가 좀 더 풍성했다면 다소 지루한 분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 5·18 현장을 많이 보여주겠다는 욕심에 대규모 군중신이 너무 잦아 작품의 비장감과 응장함이 반감되고 도식적인 장면이 연출된 점은 아쉬웠다. 무대에서 5·18을 ‘도무’ 보여주기보다는 ‘여백’을 남겨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다. 그밖에 단출한 무대세트 역시 아쉬웠다.

공연 후에는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 박수는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찬사이기 보다는 ‘격려’와 ‘감사’의 의미가 강했다. 제작진이 광주 반응에 안주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광주 대표문화콘텐츠로의 가능성은 보인 ‘화려한 휴가’는 광주와 어른 세대를 벗어나, 5·18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와 타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뮤지컬’이다. 오는 6월 12~13일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서울 공연의 반응을 정확히 전단한 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 광주 공연은 19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5·18 이야기 콘서트

22일 5·18문화관 ‘오월누리제- 빛·노래·꽃·사람’

오지혜·김규항·도종환·봄여름가을겨울 등 출연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한 ‘2010 오월누리제- 빛·노래·꽃·사람’이 열린다. 음악 공연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이야기 콘서트’, 영화 감상, 마당극 등이 어우러진 행사는 22일 오후 7시부터 5·18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열리는 ‘이야기 콘서트’는 영화배우 오지혜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야기 손님은 ‘B급 좌파’, ‘나는 왜 불운한가’ 등을 폐낸 칼럼니스트 김 규항과 ‘집시꽃 당신’의 시인 도종환이다.

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으로 유명한 2인조 그룹 ‘봄·여름·가을·겨울’과 인디그룹 소규모아카시아밴드 ‘하이미스터메모리’ 등도 출연한다. 오후 4시부터는 5·18기념문화관



오지혜



김규항



봄·여름·가을·겨울

‘백조일손’, 한두레의 ‘밥꽃수레’ 등 다양한 마당극 작품도 관람할 수 있다.

이야기 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5·18 재단 홈페이지(www.518.org)에 신청하면된다.

티켓은 공연 2시간 전부터 현장배부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 광주 첫 선

19일 광주문화예회관 … 11개국 52개 전통악기로 구성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전통악기로만 구성된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이하 전통오케스트라)가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다.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번식 추진단이 기획한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는 오는 2014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예술커뮤

니티의 첫 프로젝트로 지난해 5월 창단 후 서울과 제주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다.

전통오케스트라는 한국의 가야금을 비롯해 말레이시아·캄보디아·인도네시아 등 11개국 52개 전통악기로 구성됐으며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을 거점으로 활동하게 된다.

5·18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오케스트라 단원 100여명과 밴드리, 베트남인들의 사랑을 그린 ‘판타지 베트남’, 각국의 민요 멜로디를 차용한 ‘사랑해요, 아세안’이 장식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중섭 ‘황소’ 최고가 미술품 경매기록 깰까?

박수근 ‘빨래터’ 45억2000만원

서울옥션 경매에서 ‘경신’ 관심

이중섭의 ‘황소’ 그림이 화가 박수근의 ‘빨래터’가 세운 국내 최고가 미술품 경매기록인 45억2000만원 경신에 도전한다.

서울옥션은 오는 6월 메이저 경매에서 이중섭의 유화 ‘황소’를 주정가 35억~45억원에 경매에 부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어두운 배경 위에 소 한 마리가 땅을 내딛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그려진 ‘황소’는 종이에 그린 유화로, 소를 소재로 한 이중섭의 유화는 현재 총의 대박물관과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 등 10여 점만 알려져 있을 정도로 흔치 않은 작품이다.

서울옥션에 따르면 ‘황소’는 1972년 현대화랑(현 캐리리 현대)에서 열렸던 이중섭 전에 출품된 뒤 일반에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이다. 작품 뒤페이지에는 작품의 제목과 작가, 소장가, 전시 기간이 적혀 있는 작품정리카드가 붙어 있다.

교서에서도 수록된 ‘황소’ 그림(홍대 박물관 소장)과 유



최고가 경매기록 경신에 도전하는 이중섭의 ‘황소’

사한 작품이지만 가로 51.3cm, 세로 35.3cm로 ‘황소’그림(가로 41.7cm, 세로 30cm)보다는 크기가 크다.

서울옥션 측은 작품 도판이 흑백사진으로 실려 있는 1972년 현대화랑 작품집에 ‘작가가 통영에서 맨 먼저 그린 황소’라는 해설이 붙어 있는 점으로 미뤄 ‘황소’가 이중섭이 통영에 머물렀던 1953년에 작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거래된 이중섭의 그림 중 최고가는 2008년 서울옥션 경매에 출품된 10호 크기의 유화 ‘새와 아이들’로 15억원에 낙찰됐다.

‘대동문화’ 우수 콘텐츠 잡지

한국잡지협회 선정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이 발행하는 격월간 문화예술 잡지 ‘대동문화’가 한국잡지협회가 선정하는 2010년도 문화·예술·종교 부문 우수 콘텐츠 잡지로 뽑혔다.

한국잡지협회는 최근 2000여 종의 유가 잡지를 대상으로 시사·경영·교양 등 6개 부문 우수 콘텐츠 잡지를 선정한 결과 ‘대동문화’‘시사저널’‘드림민턴’ 등 54종을 최종선정했다.

‘대동문화’는 이번 우수 콘텐츠 잡지 선정으로 전국적인 공신력을 얻게 되었으며 매호당 120권씩 연말호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 잡지를 발행하게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